

광주시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실시

농산물 16종·생필품 14종

일일 물가조사 등 특별관리

담합·가격표시제 위반 단속

광주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설 명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특별 물가 관리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16일 “물가안정을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종합대책

을 마련해 3월18일까지 물가를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지정 및 현장점검 실시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다.

물가안정대책 기간은 오는 3월 18일까지이며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종과 쌀, 양파 등 생필품 14종 등 총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일일 물가조사 등

을 실시한다.

특히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가격조사를 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매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도 하기로 했다.

오는 25일에는 시청에서 식품산업과, 생명농업과 등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광주지방경찰청, 소비자단체 등 20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점검사항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또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신선식품 중심의 사재기, 폭리 행위 방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농수산물 직거래매장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자리 공금증 취업아카데미서 풀자

북구, 내일 전남대서 개최

광주시 북구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북구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취업강의실에서 미취업 또는 인턴 취업 중인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북구 청년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주)한국교육진흥원 소속 윤혜경씨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이미지 컨설팅’을 주제로 실제 취업준

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동신대, 광주대 등 광주 지역 5개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청년 고용지원제도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올해 분기별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및 진로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 스트레스 및 자기관리 등을 주제로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관 건립

조사용역 추진

내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 계획

광주시가 일부 문인단체들의 갈등 속에 중단됐던 문화관 건립에 관한 용역을 한다. 광주시는 16일 지역 문화자산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문화관광 인프라인 문화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될 이 용역은 다음 달 착수해 건립 타당성 조사부터 예정부지 조사, 건립기획 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광주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하게 된다.

지역 문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문화관 건립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뒤 2008년 관련 용역이 추진됐다. 조금 빛고을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동구 운림동에 건립이 추진됐다가 남구 광주공원으로, 이후 전일빌딩과 모예식장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 단체, 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문화관에는 부지 3000여㎡에 전체 면적 5000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문화관은 국비 등 150억원이 투입된다.

/오광록기자 kroh@



지남해 광주시 동구가 연 ‘남성요리교실’에 참가한 중년 남성들이 강사와 함께 국거리를 만들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앞치마 둘러볼까?” 연령·수준별 맞춤 ‘남성요리교실’

동구, 23일까지 60대 모집

광주시 동구가 혼자 사는 남성, 맞벌이 가정 남성들을 위한 ‘2018 동구 남성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지남해 2기까지 진행된 남성요리교실은 남성의 가사능력이 중요시되는 요즘 교육을 통해 기초 요리지식 습득과 실생활에서의 높은 활용도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8 동구 남성요리교실’은 연령별 기수 구성과 학습자의 연령대, 수준을 고려

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돕는다.

3기 남성요리교실은 60대 이상(1958년 생 기준) 남성을 대상으로 1월 25일과 2월 1일, 8일 3회에 걸쳐 운영된다. (사)자비신행회 빛고을자연음식문화원에서 잡곡밥, 소고기미역국, 제육볶음, 생선조림, 달걀말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고기 활용법, 나물 무치는 법, 생선 손질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수강생 3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격은 주소지가 동구인

60대 이상 남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계로 전화(062-608-2325)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가비 5000원.

4기 요리교실은 40~50대를 대상으로 3월 1일, 5기 요리교실은 20~30대를 대상으로 4월에 개강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남해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남성요리교실이 올해 더욱 알차고 풍성한 구성으로 주민들을 맞는다”면서 “요리에 관심 있는 남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대상 확대키로

광주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휴게공간을 개선한다.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나선 광역 지자체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16일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20곳을 선정,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게소가 없는 곳은 휴게실을 만들거나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휴게실은 지상으로 옮긴다. 노후 휴게실은 증축하거나 시설 개선하고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갖춘다.

광주시는 지난해 7~8월 관내 1040

여곳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 실태조사를 벌여 30%가량이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60여곳의 휴게실이 지하에 있거나 냉난방기가 없는 곳도 590여곳에 달했다. 일부 아파트는 화장실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게공간이 열악하거나 아예 없어 우선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할 단지가 최소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성과 반영 등을 본 뒤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여성친화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22일까지 50여명 모집

광주시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제4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50여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고 여성친화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bukgu.gwangju.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북구청 여성가족과(062-

410-6411)로 방문 또는 팩스(062-510-1475), 이메일(innsy8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오는 2월 초 위촉식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제안 ▲생활불편사항 모니터링 ▲일·가정 양립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및 활동 우수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친화 리더교육 및 역할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분할매매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